



서연신문

2019-14호

- 발행인: 교장 김두용
- 지도교사: 정 혁
- 신문부장: 김가은
- 발행처: 변산서중학교
- 발행일: 2019. 12. 20



우)56342 전북 부안군 변산면 지사로 139 / 교장실 063) 583-6679 / 교무실 063) 582-8122 / 행정실 063) 582-8039

사랑과 감동의 서연축제



10월 31일(목) 변산서중학교의 가장 큰 행사인 제16회 서연축제가 개최되었다.

강당에는 학생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미술 작품, 포트폴리오 등의 각종 전시물이, 학교 외부에는 시화가 각각 전시되었다.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었는데 오전에는 달고나, 팝콘 등의 먹거리와 신기한 VR 체험, 드론 및 로봇 체험, 노래 솜씨를 뽐내보는 '변산 스타 j' 등의 재밌고 유익한 체험 부스들이 운영되었다. 특히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분식 부스 '엄마의 사랑 한 입'은 저렴하지만 양과 질을 모두 만족시켜 초등학교부터 학부모들까지 모두 줄을 서는 등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오후에는 1년 동안 열심히 피운 꽃이 결실을 맺는 학생들의 발표마당이 진행되었는데 방과후 시간과 점심시간 등을 쪼개가며 열심히 준비한 반별 무대, 사물놀이, 락밴드, 바이올린, 우쿨렐레, 난타, 플루트, 댄스, 그리고 남교사들로 구성된 그룹 <동서남북> 초청공연, 마지막으로 전교생 합창 '꿈꾸지 않으면'까지 다양한 무대들로 꾸며졌다.

행사를 지켜본 김두용 교장선생님은 이번 서연축제에 대해 "열여섯 번 서연축제가 운영이 되면서 이번이 제일 준비가 많이 된 무대였다."라고 하며, "다만 발표마당이 댄스가 너무 많은 거 같다."라고 하며 다소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리고 김두용 교장선생님은 선생님들이 무대에 참여하여 보기가 좋았다고 하며 내년에는 여선생님과 교장선생님도 함께 무대에 참여하겠다고 다짐하여 내년 서연축제를 기대하게 하였다.

■학생기자 이수빈, 강한별

기타리스트 로로 초청공연

음악으로 삶을 그리는 바이올린 & 기타리스트 로로

11월 19일(화) 음악으로 삶을 그리는 바이올린 기타리스트 로로가 변산서중학교를 방문하였다. 기타리스트 로로는 루프스테이션이라는 기계를 사용하여 기타와 바이올린의 환상의 하모니를 자아내어 참석한 교육장을 비롯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기타리스트 로로는 보는 사람이 웃음이 나오게 만드는 밝은 성격과 연주 중간마다 심심하지 않도록 토크를 진행하여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고,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로로는 자신이 처음 음악을 할 때에는 부모님께서 격렬히 반대하셨다고 밝히고, 최근에는 결국 설득에 성공해 음악하는 삶을 허락하셨다고 말했다.

연주 끝무렵에는 로로의 어머니가 등장하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관한 강연을 하여 학부모들에게는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연주를 듣던 1학년 이성언 학생은, "처음에는 흥미가 별로 없었는데 점점 공연에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재미있게 본 것 같아요. 루프스테이션을 이용해서 연주하는 노래도 마치 합주단 같아서 웅장하고 멋있었어요!"라며 자신의 후기를 남겼다. 학생들의 종합적인 현장 반응은 다음 공연을 기대한다고 하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학생기자 송서현



Contents

2 + 학교생활은요

- 우리 학교는 우리가 가꾼다!!
- 찾아가는 과학관
-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STEAM Day'
- 유배문학을 알다.

3 + 재미와 감동이 있는 체험 속으로

- 전통시장 체험학습
- 농구경기 관람
- 변산서중 학생들 진로체험 가다.
- <꽃 아닌 것 없다>의 복효근을 만나다.

4 + 따뜻함이 묻어나며, 학생자치가 꽃 피는 학교

- 소원아 이루어져라 ~!!
- 손재주를 뽐내볼까?
- 흔들그네 목공체험
- 목조 구조물 코팅
- 아침독서의 기적

5 + 배움 나눔 성장으로 하나 되는 우리

- '우리는 한가족' 융합과학수업
- '과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 '리더로서 리더하라'
- 성주산 휴양림을 다녀오다.

6 + 자유학기제

- 세계의 중심이 되는 가온누리
- 푸릇푸릇 자연이 공존하는 청호수 마을
- 상상이 현실이 되다, 3D 펜!
- 앉아서 세계 속으로 "세계여행"

7 + 우리들의 동아리

- 가온누리 - 우리의 역사를 알자!
- 그것이 알고 싶다! 주니어레인저
- 방송부 -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부
- 그것이 알고싶다! 4-H

8 + 함께 나누는 기쁨 및 알려 드릴 말

- 축하합니다. ^^
- 사랑의 장학금
- 학생작품
-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우리 학교는 우리가 가꾼대!!
**학생회 “학교 아끼는 날”을 통해
 학교정화활동 실시**



지난 9월 20일(금) 점심시간에 학생회(회장 김정민) 임원들과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이 모여 ‘학교 아끼는 날’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점심을 먹고 난 후 자발적으로 모여 자신이 맡은 구역의 정화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학교 아끼는 날’에 참여하였던 황주찬 학생은 “학교를 아끼는 날에 참여하니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생겨났고, 청소를 다 같이 하고 나니 뿌듯하기도 하였다. 학교를 아름답게 꾸며 예쁘게 만들어주시고 학생들을 매일 같이 사랑과 따뜻함이 담겨 있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교장선생님께 감사함을 느꼈다.”라며 참여하면서 느꼈던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학교 아끼는 날’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를 소중히 대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판단된다.

■ 학생기자 정성영

찾아가는 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후원회가 함께하는
 ‘찾아가는 과학관’ 실시**



2019년 10월 18일(금) 변산서중학교 강당과 본관에서 ‘찾아가는 과학관’을 실시하였다. 이웃의 계화초등학교를 비롯해 변산의 여러 학교 초·중학생들이 다수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스피커 만들기

체험과 주간 천체관측, 3D 펜 체험, 증강현실(VR)·가상현실(AR)체험, 과학 실험쇼 등 다양한 과학 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를 담당한 김덕중 선생님은 “과학문화는 늘 우리 지역이 다른 도시에 비해 외곽에 있어 과학문화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게 늘 안타까웠다. 하지만 국립광주과학관 후원회와 함께하는 이번 ‘찾아가는 과학관’ 체험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흐뭇하다.”라고 하였다.

■ 학생기자 김보람



書對公감 - 저자와의 만남

<꽃 아닌 것 없다>의 복효근을 만나다.

11월 26일에는 <書對公감>에서 마련한 두 번째 학부모교육으로 우리 현대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는 <당신이 슬플 때 나는 사랑한다>의 복효근 시인을 초빙하여 그의 시 세계와 현대시를 감상하는 방법 등에 대한 주제로 오후 두시부터 약 두 시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는 변산서중학교 교직원(교장 김두용)들과 인근 3개 학교(변산서중, 변산초, 격포초) 학부모들을 비롯하여 지역민들도 참석하여 복효근 시인의 시 세계를 함께 엿보았으며, 시인은 시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누구나 쓸 수 있다고 강조하여 많은 감동을 주었다.

■ 학생기자 김가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STEAM Day’

11월 20일(수)에는 격포초등학교에서, 11월 21일(목)에는 변산초등학교에서 각 학교 6학년 학생들과 변산서중학교 과학동아리 학생들이 ‘STEAM Day!’ 어울림 마당을 실시하였다.

이번 어울림 마당에서는 메이키메이키, 코딩드론, 3D펜, 꿈향아리, 블루투스 화분 스피커 등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것과 전선을 연결하고 코딩하여 음악을 연주해보는 메이키메이키 체험과 드론을 프로그래밍 해서 조종하는 코딩드론 체험을 통해 코딩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고, 허공에 선을 그어 물건을 만드는 3d펜으로 미술 감각을 키워보는 등 STEAM수업들로 여러 분야에 조금 더 능통하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STEAM이란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학), Art(예술), Mathmatics(수학)의 줄임말로 특정 분야에 치중하는 게 아닌, 여러 분야에 능통한 융합형인재를 키우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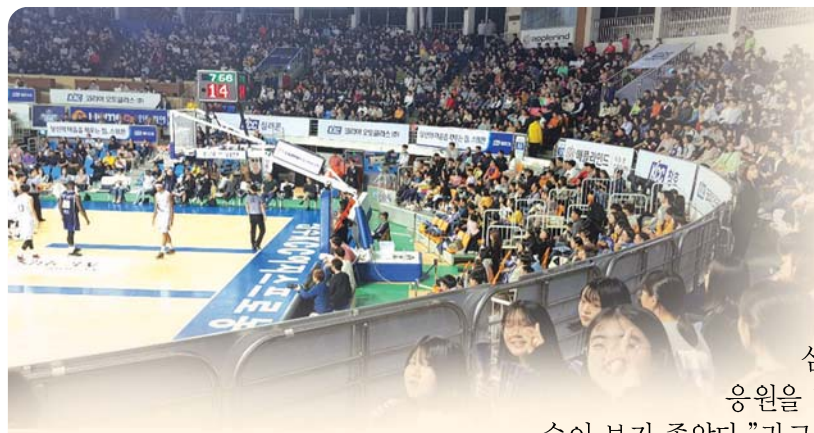
■ 학생기자 오다경, 김단



내고장체험활동

전통 시장 체험 학습

지난 11 월 14일(목) 전교생을 대상으로 상설시장 투어를 실시하였다.
상설 시장 투어는 네 명을 한 조로 하여 총 3개 조가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구매하고 음식까지 만드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신청한 학생이 많아 모든 학생들이 시장을 방문하지 못하였지만 마지막 요리에는 나머지 학생들까지 모두 약 20명이 참여하여 체험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내고장체험학습의 생태체험학습으로 기획된 것이며 학생들은 친구, 선후배들과 추억도 만들고 요리도 함께 배우며 만족해했다고 한다. ■학생기자 진아름



농구경기 관람~

어울림학교 문화예술체험

지난 11 월 23일(토)에 전주 KCC이지스의 홈구장인 전주 실내 체육관에서 인솔교사 2명과 희망학생 40명이 농구 관람을 하였다.
전주KCC와 안양KGC의 경기를 관람하며 농구라는 스포츠에 관심과 이해를 갖게 된 1학년 최다운 학생은, “농구 관람을 하면서 관객이 응원을 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응원을 하고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라고 하였고, 1학년 김지우 학생은 “KCC선수들의 단합을 보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비록 KCC팀이 지긴 하였지만 KCC팀의 단합력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등 여러 학생들이 경기 결과는 아쉬웠지만 농구 경기 관람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학생기자 최다운

학부모 독서 문화체험학습 '책가방'

유배문학을 알다.



2019 학년도 어울림학교 독서 문화 체험학습 '책가방' 이 10 월 15 일(화)에 남해 일원에서 변산서중학교, 변산초등학교, 격포초등학교 등 3개 학교의 약 24명의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번 체험학습은 어울림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독서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총 2회 계획되었으며, 이번 2회에는 남해 유배 문학관을 시작으로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남해 다랭이 마을 등지에서 진행되었다.

체험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임미화 학부모(2학년 신경진)는 “남해에 와서 평소 글로만 봤던 김만중의 소설이 이런 아름다운 환경에서 쓰여졌다고 생각하니 유배지치고는 참 아름다운 곳이라 그런 좋은 글이 나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남해의 아름다움에 대해 만족했다고 한다. ■학생기자 김단

추계현장체험학습

변산서중 학생들 진로체험 가다.

변산서중학교 학생들이 대전에서 진로와 적성을 찾다.

지난 10 월 11일 변산서중 학생들이 진로체험 활동을 위해 대전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했다.

전교생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은 대덕연구단지 내의 과학 기술원 등에서 직접 체험을 해보며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민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 의자왕과 3천 공녀의 전설로 유명한 부여의 낙화암에서 백제 역사에 대해서도 학습했다고 한다.

체험학습에 참여한 1학년 박환희 학생은 "학교에서 간 진로 체험학습 덕분에 과학기술 등을 직접 체험하며 저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런 여러 지원을 해주신 변산서중학교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변산서중학교는 학생들의 꿈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학생기자 황주찬



소원아 이루어져라~!!

제3차 소원나무 행사

지난 10월 28일(월) 변산서중학교에서 아침 조회시간에 제3차 소원나무 행사가 진행되었다.

‘소원나무’는 1년에 3~4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꿈, 진로 등과 관련된 소원을 대신 행해주고자 기획되었다. 본관 중앙 현관에 소원 나무를 설치하고, 학생, 교사들이 각각의 사연과 소원을 그 나무에 매달면 그 주이에서 도움 가능하고 진정성이 높은 학생과 교사의 사연을 선택하여 도서 및 학용품 등의 소원 상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 행사의 특징은 변산서중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 행사에 참여한 1학년 김지우 학생은 “소원나무 행사는 정말 뜻 깊고 좋은 행사인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번 행사는 3년차에 접어든 변산서중학교 혁신학교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담당교사 김혜림 선생님은 밝혔다.

■ 학생기자 김태규



혁신학교 학부모교육

손재주를 뽐내볼까?

9월 23일(월), 10월 30일(수) 변산서중학교 미술실은 꽃향기로 가득 찼다. 그것은 바로 라탄 공예와 리틀 포레스트라는 주제로 혁신학교 학부모교육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약 2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부모교육은 꾸미큐(대표 강수미), YFYL(대표 이은세) 등에서 학교에 방문해 진행되었으며, 라탄 공예를 통해 만들어진 바구니에 꽃무늬를 넣어 최종적으로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완성하여 학부모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행사를 진행한 이은세 강사는 “가을 담은 꽃마차 만들기”라는 주제가 이렇게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을 줄 몰랐으며, 아름다운 변산의 가을 덕분인 거 같다고 자평하였다. 이번 교육은 올해 세 번째 혁신학교 학부모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 학생기자 김시우



혁신학교와 함께하는 진로탐색

흔들그네 목공체험

혁신학교와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목공체험이 10월 29일, 10월 30일, 11월 5일 이렇게 총 3회 변산서중학교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1학년 전체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한다.

학생들은 초빙된 목공예 전문가의 인도에 따라 직접 흔들그네를 만들어 보았는데, 막상 완성을 하고 보니 마치 그림 속 그네처럼 멋지다고 자신들이 만든 그네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는 후문이다.

이번 체험을 진행한 안재현 선생님은 “그네를 만들면서 우리 학생들이 협동심과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어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 학생기자 정진주



목조 구조물 코팅

11월 28일(목) 3교시와 4교시에 1학년 25명의 학생들이 교내의 본관 뒤편과 급식실 옆의 목조 그네와 벤치 등에 대한 재페인팅 및 코팅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작업은 기존에 설치해 둔 목조 그네와 벤치 등이 비바람에 의해 파손되거나 낡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인데 1학년 이수빈 학생은 “우리들이 예전에 만들어 두었던 목조 구조물들을 아끼기 위해 더욱 열심히 색칠하고, 코팅하면서 점점 예전의 색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다.”라고 그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변산서중학교의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과 활동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1학년 학생들은 이 구동성으로 전했다.

■ 학생기자 정진주



책과의 대화 즐거움을 찾다.

아침독서의 기적

변산서중학교에서는 학기초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아침 독서활동을 진행하여 시상해왔다.

아침독서 활동은 매일 아침 도서실을 개방하여 학생들이 아침 등교시간에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는데 매달 말에는 출석횟수가 많은 학생들을 세 명 선정하여 시상하기도 하였다.

가장 많이 출석한 학생 중 한 명인 3학년 이성찬 학생은 “평소에 책을 좋아했는데 이렇게 일찍 도서실을 개방하여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이번 기회에 올해 독서왕을 노려보겠다.”라고 그 포부를 밝혔다.

아침독서를 통하여 학생들의 책을 읽는 속도와 집중력, 어휘력을 향상시키며 꾸준한 독서를 통한 지식과 언어능력,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라고 한다.

■ 학생기자 안강현



어울림학교(초·중등학교 연계형) 사업

■ 프로젝트 학습

‘우리는 한가족’ 융합과학수업



10월 13일(금)에 행안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과 '우리는 한가족'이라는 어울림학교 프로젝트학습 중 하나인 융합과학수업을 실시하였다. 올해 행안초등학교는 처음으로 방문하여 진행된 수업에서 '코딩 드론', '메이키메이키', '블루투스 화분 스피커', '브레드보드-러브미터' 등의 학생들이 재미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네 가지 체험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융합 과학에 흥미를 갖게끔 하였다고 한다.



변산서중학생들과 행안초등학교 학생들이 어우러져서 유쾌한 수업을 할 수 있었고, 행안초등학교 학생들이 각 체험에 흥미를 갖고 변산서중학생들의 설명을 귀 기울여 들어준 덕에 체험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담당교사 김덕중 선생님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 학생기자 김단

■ 여름방학 독서 과학 캠프

‘과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8월 12일(월)부터 8월 13일(화)까지 1박 2일 동안 변산서중학교에서 변산초등학교, 격포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여름방학 독서과학캠프를 실시되었다.

학생들은 산염기 지시약 실험, 브레드 보드-러브미터 만들기 등 여러 체험을 하였고 미션이 있는 드론 체험, 생동감 넘치는 VR 체험을 하면서 과학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한다.

또한 다 함께 <청소년을 위한 코스모스>라는 책으로 경쟁 없이 자신의 의견을 내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질문을 하는 비경쟁식 독서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 어휘 능력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이었다고 담당교사 정혁 선생님은 자



평했다.

이번 여름방학 독서캠프는 1박 2일 간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학생들과 초등학생들이 다 함께 먹고, 씻고 자면서 친분도 쌓을 수 있었으며, 저녁 시간에는 관련 영화도 보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고 한다.

■ 학생기자 김단

■ 리더십 인성교육 체험

‘리더로서 리드하라’

11월 9일(토) 격포초, 변산초 학생들과 변산서중학교 학생회 학생들이 어우러져 리더십 인성교육 체험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마술체험, 텐트 치기 체험 등을 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초등학생들과 학생회 학생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유대감도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진정한 리더가 되는 길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1학기 때도 리더십캠프에 참가했었던 1학년 김하은 학생은 “저번 1학기 때 진행했던 리더십캠프보다 더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라고 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 학생기자 김단



■ “어우렁 더우렁” 숲 체험활동

성주산 휴양림을 다녀오다.

10월 19일(토)에 충남 성주산 자연휴양림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어우렁 더우렁’ 숲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변산 지역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함께 손잡고 참여하여 아름다운 성주산 자연휴양림을 거닐면서 해설사의 숲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꽃, 나무 등과 같은 주변의 자연환경을 더 많이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을 인솔한 김덕중 선생님은 “인간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을 거스르기보다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보령의 석탄 박물관도 둘러보았는데 박물관을 관람하면서 석탄의 기원과 역사 등을 알게 되었고 갯도전시실을 탐방하며 석탄 작업과정도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성주산 자연 휴양림은 맑은 공기와 풍요로운 풍경이 보기 좋고,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은 곳이라고 하며, 이런 휴양림이 전국에 약 90여 개가 있다고 한다.

■ 학생기자 박환희, 이가희



자유학기동아리 원목 건축 만들기

2학기 자유학기제 동안 진행된 가온누리 동아리의 활동은 역사에 대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원목 건축 만들기 체험, 나노 블럭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그 중 원목 건축 만들기의 결과물들은 서연축제에 전시하기도 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유적지 등을 방문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배우고 되새기는 등의 일련의 활동을 수차례 진행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드게임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쉽고 즐겁게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고, 레츠고 한국사 보드게임을 통해 선사시대, 고려시대, 후삼국통일,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 현대까지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 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실제 6.25 당시의 대한민국이 생생하게 담겨있는 영상도 시청하여 이해를 높였다고 하였다.

1학년 2반 정성영 학생은 “2학기 자유학기제 가온누리에서 역사 보드게임, 건축물 만들기, 역사 영상 시청하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역사에 대하여 재미있게 배우기도 하였고,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끼리 유대감도 느낀 매우 유익한 동아리 활동이었던 거 같습니다.”라며 가온누리 동아리 활동에 대한 후기를 말해주었다.

■ 학생기자 정예린



진로체험

푸릇푸릇 자연이 공존하는 청호수 마을

변산서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맞이하여 우리 고장 부안에 있는 청호수 마을에 다녀왔다.

오전에는 1반과 2반으로 나누어 두 가지의 다른 활동을 진행했는데 1반 학생들은 다육이 심기 활동을 먼저 하였고, 2반 학생들은 브라우니 만들기 활동을 하였다.

오후에는 버블 슈트와 노래방 체험을 하였는데 매우 활동적인 체험인데다 학생들이 평소에 좋아하던 노래도 들을 수 있어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한다.

버블 슈트를 체험한 1학년 정예린 학생은 “버블 슈트 체험 도 중 작은 부상을 입어 나머지 노래방 체험을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청호수 마을을 다녀온 후로 친구들과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지기도 해서 좋은 경험을 했던 거 같습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활동은 1학년 학생들의 토래 관계와 협동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된다.

■ 학생기자 김지우



진로탐색

상상이 현실이 되다, 3D 펜!

이번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 화요일 5, 6, 7교시 때 진행한 진로탐색은 건축, 디자인, 마술, 조명디자인, 메이크업 등 학생들의 미래의 여러 진로를 알아보기 위한 체험이었다.

여러 체험 중에서도 특히 3D펜 체험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 하는데 총 세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3D펜뿐만 아니라 3D 프린팅이 그려낼 미래의 제조, 3D펜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강의도 있었다고 한다. 학생들 모두 3D펜으로 다양한 도안을 이용해 물건들을 만들어 볼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서 평소 3D펜을 접하지 못해 보았던 학생들 모두 즐겁게 체험에 참여하였다고 이구동성으로 학생들이 말하였다.

3D펜 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1학년 김단 학생은 “3D펜을 하면서 2D가 아닌 3D의 작품을 창작해 내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3D펜으로 가구 같은 커다란 물건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3D펜을 더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 학생기자 김하은



주제선택

앞아서 세계 속으로 “세계여행”

2학기 자유학기제에 들어 매주 월요일 주제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이 5~6교시에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 ‘세계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은 영어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학기 초에는 여러 대륙과 해양을 영어로 익히며 공부를 하였고 한다. 지구에 있는 대륙과 해양을 재밌게 익히기 위해 지구본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기도 하였으며, 그 후에 대륙과 해양을 어느 정도 익힌 후 그 대륙에 포함되어있는 나라를 알아보았다. 활동은 걱정 인형 만들기, 파스타 만들기 등등 학생들이 쉽고 즐겁게 다가갈 수 있는 활동이었다는 학생들의 평이었다.

본 프로그램에서 진행할 때 사용된 언어는 대부분 영어로 사용되었기에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으며,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김효현 선생님께서는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교과 시간에는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수업을 시도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들을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길 바랍니다.”라고 하며, ‘세계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한 소회를 밝혔다.

■ 학생기자 이은경



자율동아리

가온누리 - 우리의 역사를 알자!

변산서중학교 자율동아리인 가온누리가 10월 26일(토)에는 서울의 독립문, 서대문형무소, 중면전, 환구단 등으로 문화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답사는 학생들이 직접 모든 일정과 경로를 계획하고, 스스로가 리더가 되어 이끌어 갔다고 한다.

당시 문화 답사에 참여하였던 1학년 1반 김보람 학생은 “변산서중학교에 입학해서 가온누리 동아리에 참여한 건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다. 내년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에게 가온누리 동아리에 꼭 들어오라고 말하고 싶다. 이번 답사를 통해 친구와 선배님과의 사이가



돈독해 지는 것을 느꼈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지 알게 됐다.”라고 가온누리 동아리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가온누리 동아리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유적지를 답사하기도 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문화답사뿐만 아니라 문화유적지 보호 등의 더욱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 학생기자 김가은

과학동아리 과학발전소

그것이 알고 싶다! 주니어레인저

주니어레인저는 총 김정민 외 11 명들의 학생들이 우리 고장의 환경을 지키며 여러 자연 환경에 대한 탐방을 실시하는 변산서중학교 동아리 중 하나이다.

주로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보호, 조경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여 주니어레인저 학생들이 자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고 한다.

동아리 1학년 김단 학생은 “주니어레인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즐거웠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인터뷰에 응하였다. ■ 학생기자 최승주



방송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부



변산서중학교 자율동아리 방송부는 1년 동안 점심방송과 저녁방송을 하며 학생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노래를 틀어주어 변산서중학교 학생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점심방송과 저녁방송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갈등의 사연을 방송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해결방안을 알려주기도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 받아 점심방송과 저녁 시간에

PD가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방송부에는 엔지니어, PD, DJ를 맡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후배가 어울려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하는데 방송부 국장 임태은 학생은 “방송부의 장점은 학교 행사 때나 아침 조회 등 방송 장비를 방송반에서 준비할 때가 많아 하다 보면 책임감이 생긴다.”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송부의 장점을 말해주었다. ■ 학생기자 곽경혜



그것이 알고 싶다! 4-H

4-H란 지(智), 덕(德), 노(勞), 체(體)의 이념을 가진 청소년 단체로 학생들이 창조적인 세대로 성장해 지역과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교육을 하는 운동이다.

변산서중학교의 4-H 동아리(회장 정다빈)는 총 인원이 14명이며, 주 활동은 학교 화단 가꾸기, 학교 내의 봉사활동 등 여러 활동을 통하여 농업이나 환경, 생명의 가치 등을 중시하고 아끼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학교의 중요한 동아리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학교 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연도에 들어 4-H 1학년 이서현 학생은 “평소에 식물 가꾸기를 좋아하는데 4-H에 들어오니 여러 꽃이나 식물 등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직접 물도 주고 화분에 심어보고 하니 활동하는 내내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즐거웠다.”라고 하여 4-H 활동의 효과를 나타냈다.

■ 학생기자 이서현



축하합니다.^^

■ 석정 촛불 청소년 문학제 백일장 참가 수상



지난 11월 2일(토), 석정문학관에서 제3회 석정 촛불 청소년 문학제 백일장에 우리 학교 학생 3명이 수상하였다.

중등부 운문 부문에서는 2학년 박주현이 ‘풀벌레’로 우수상, 중등부 시낭송 부문에서는 2학년 최유민, 최아영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부안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우리 현대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신석정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그의 열을 추모하기 위한 대회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낸 것은 평소 독서를 하고 독서노트를 작성하는 등 꾸준히 글쓰기 연습을 한 결과라고 학생들을 인솔했던 황일주(국어) 선생님은 진단하였다.

■ 학생기자 정진주

■ 교내 독서 논술쓰기 대회

지난 11월 8일(금) 교내 독서 논술쓰기 대회가 각 교실에서 전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학급별로 책을 읽으면서 독서 토론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총 70명이 참가한 결과, 2학년 최유민이 최우수상, 1학년 김하은, 2학년 이성진이 우수상, 1학년 김가은, 김지우, 2학년 정나눔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우리 학교 특색 사업인 ‘독서-토론-논술 능력 배양’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독서 논술쓰기 대회를 통해 독서뿐만 아니라 독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 주제를 가지고 열린 토론을 함으로써 자신감과 발표력 등이 향상되었을 것이라고 국어과 정형 선생님은 기대했다.

■ 학생기자 최승주

사랑의 장학금

제12회 동창회 후배들에게 장학금 전달

2019년 교장실에서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 장학금은 12회 동창회(회장 김시선)에서 후배들을 위해 전달한 장학금이며, 학교에서는 평소 모범이 되는 학생들 중에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지급하였다.

김두용 교장 선생님께서는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장학금을 보내주신 선배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다음에 자신이 졸업하면 자신들이 선배님들께 받았던 감사함을 기억하여 후배에게 나눠주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장학금을 담당하는 나향탁 선생님께서 “선배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보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끝으로 김두용 교장 선생님께서는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모범을 보여 장학금을 전달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 학생기자 이성언



학생작품 - 시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이성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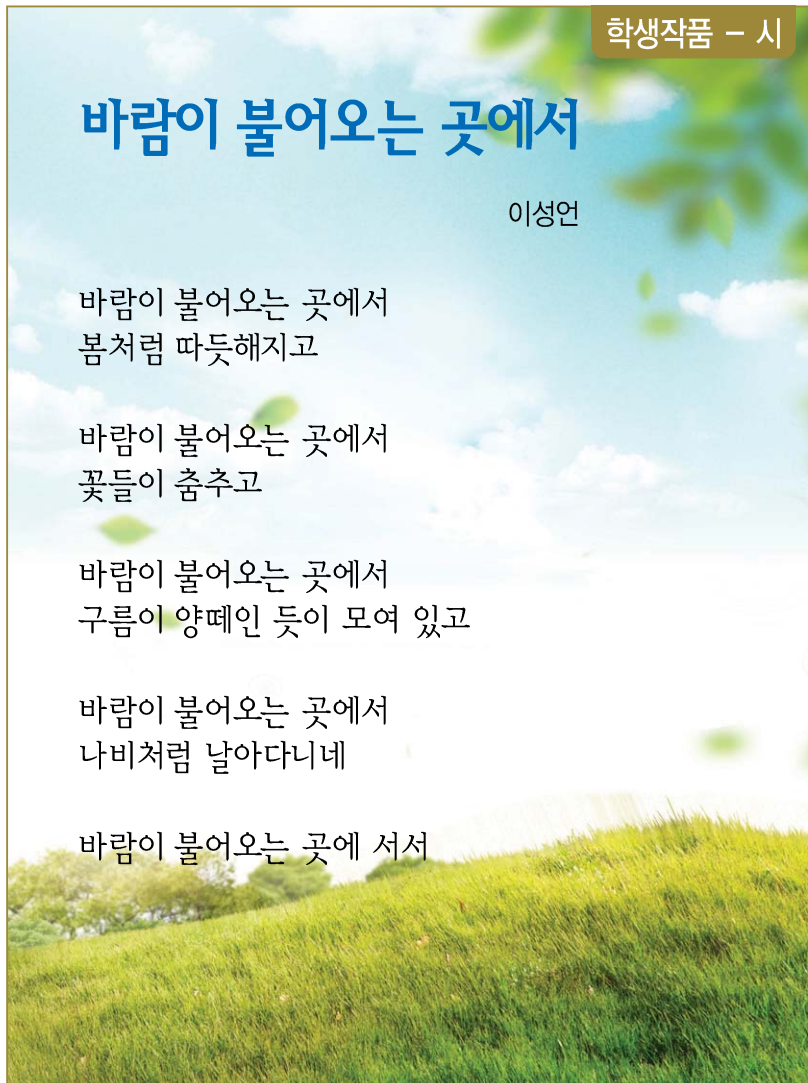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봄처럼 따듯해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꽃들이 춤추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구름이 양떼인 듯이 모여 있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나비처럼 날아다니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서서



전교생이 참여한 설치 미술

학교를 누비는 물고기



겨울방학 학교 일정

☆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

- 2020년 01월 03일(화) : 졸업식
- 2020년 01월 06일(금) : 방학식
- 2020년 01월 20일(월)~22일(수) : 썩썩 과학캠프 운영
- 2020년 01월 20일(월)~28일(화) : 특수학급 방과후 학교 운영
- 2020년 02월 25일(화)~26일(수)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2020년 03월 02일(월) : 개학식

